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원고지 쓰기

N. d. H.

2023년 12월 19~22일

1. 온점은 그 뒤에 한 칸을 비우고, 반점은 그리 하지 않는다. 어떤 원고지 정서법 안내에서는 온점 다음에 한 칸을 비우지 말라고 하기도 한다. ‘큰 문장부호’ 물음표와 느낌표는 한 칸을 차지하고 그 뒷칸을 비운다.

No 1

	그	런	데		놀	랍	게	도		옥	중	한		증	은		여	것	
번	을		넘	겨		일	곱	번	,	일	곱	번	을	넘	겨				
여	웁		번	,	그	렇	게		어	김	없	이		열	두		번	을	
을	리	고		나	서	야		몹	쫘	다	.		12	시	였	다	!		그
가		잠	자	리	에		든		시	간	이		2	시	가		넘	었	을
때	였	다	.		그	렇	다	.		시	계	가		고	장	난		것	이
다	.		시	계		툼	니	바	키	에		고	드	름	이	라	도		달
렸	나	.		12	시	라	니	!											

만약 온점 다음에 한 칸을 비우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처럼 되는 것이다.

No 1

	그	런	데		놀	랍	게	도		옥	중	한		증	은		여	것	
번	을		넘	겨		일	곱	번	,	일	곱	번	을	넘	겨				
여	웁		번	,	그	렇	게		어	김	없	이		열	두		번	을	
을	리	고		나	서	야		몹	쫘	다	.	12	시	였	다	!		그	가
잠	자	리	에		든		시	간	이		2	시	가		넘	었	을		때
였	다	.	그	렇	다	.	시	계	가		고	장	난		것	이	다	.	시
계		툼	니	바	키	에		고	드	름	이	라	도		달	렸	나	.	12
시	라	니	!																

원하는 대로, 또는 (입시 등에서라면) 요구하는 대로, 쓰면 되겠다. 생각건대 온점 다음에 한 칸을 비우는 편이, 문장의 시작을 식별하기에 더 좋고 큰 문장부호와의 형평을 생각해도 적절하다고 보지만 이는 개인적인 선호이다.

2. 문단의 시작 위치가 아니라면 맨 왼쪽 칸을 비우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단어가 윗줄의 마지막에 걸리고 다음 단어가 다음 줄의 첫 칸에 걸리면 둘 사이의 띄어쓰기가 표시되지 않는다. 띄어써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미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오른쪽 여백에 띄어쓰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

201

	그	런	레		늘	랍	게	도		옥	증	한		증	은		여	엇		
번	을		넘	겨		일	곱		번	,	일	곱		번	을		넘	겨		
여	웁		번	,		그	렇	게		어	김	없	이		열	득		번	을	
을	리	고		나	서	야		엎	췌	다	.			12	시	였	다	!	그	
가		잠	자	리	에		든		시	간	이			2	시	가		넘	었	을
때	였	다	.			그	렇	다	.		시	계	가		고	장	난		것	이
다	.		시	계		툼	니	바	키	에		고	드	름	이	라	도		달	
렸	나	.				12	시	라	니	!										

3. 줄 끝에 걸리는 (닫는) 문장부호는 오른쪽 여백으로 내어쓴다. 닫는 따옴표가 온점이나 반점과 함께 있으면 한 칸에 들어가기 때문에 줄 끝에 걸렸을 때 온점과 함께 오른쪽 여백으로 밀어내어 붙인다. 문장부호가 두 칸 이상을 차지할 때에는 다음 줄로 내릴 수 있다. 이 때에도 문장부호만이 줄의 첫 칸을 차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글자와 함께 내려와야 하고, 비우는 윗줄 마지막 칸이 띄어쓰기가 아님을 표시하기 위해 이음줄을 붙인다.

№ 1

학	기	,		매	주		한		번	씩		출	강	한		일	이		있	다	.
힘	드	는		출	강	을		한		학	기		하	게		된		것	은	,	
주		수	녀	님	과		김		수	녀	님	이		내		침	에		오		
신		것	에		대	한		예	의	도		있	었	지	만		나	에	게		
는		사	연	이		있	었	다	.												
		“		나	는		늙	고		병	들	어		산	것		밖	을		나	서
		지		뜻	한		지		침	여		년	이	니		너	희		제	자	
		증	에		누	가		나	를		의	하	여		수	부	(水	府)	
		에		들	어	가		용	왕	께		회	사	하	고		들	아	을		
		꼬		?	”																

두 칸까지는 여백에 두어도 괜찮을 성싶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여도 좋다. 예컨대 온점·반점과 괄호가 잇대어 있을 때 굳이 다음 줄로 끌어내리지 않고 여백에 두 부호를 배치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이 역시 선택의 문제이다.

말없음표……와 줄표—는 예외적으로 첫 칸에 놓여도 부득이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들은 여백에 두기에 부담스럽기는 하다. 생각건대, 줄표는 의미상 첫 칸에 놓여도 상관없겠지만 말없음표는 다른 문장부호와 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다. 즉 두 칸 이상을 차지하므로, “마지막 한 글자와 함께” 이동하여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만 말없음표의 점 세 개를 줄의 마지막 칸에, 나머지 세 개를 다음 줄 첫 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문장부호의 여는 부호를 줄끝에 외따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다음 예의 첫 줄과 여섯째 줄의 따옴표와 여는 괄호는 잘못 놓인 것이다.

No. 1

	팔	선	녀	가		예	하	고		줄	어	았	아		아	되	되	,	“
대	사	는		산		서	편	에		있	고		나	는	산		등	편	
에		있	어		상	거	(相	距)	가		멀	지		아	니	하	오
되		자	연		다	사	(多	事)	하	와		한		번	도		법
적	에		나	아	가		경	근	을		들	지		못	하	오	니		치
인	(處	人)	의		도	리	도		없	고		또	한		교	인	(
交	人)	하	는		의	리	도		없	사	읍	기	에	,	시	비	를	
보	내	어		안	복	를		늘	잡	고		검	하	여		천	화	선	과
(天	花	仙	果)	와		칠	보	는	금	(七	寶	紋	錦)	으	로
구	구	한		경	성	을		표	하	나	이	라	.”						

이럴 때는 맨 끝 한 칸이 비더라도 다음 줄로 넘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붙은 여는 문장부호를 다음 줄의 첫 칸보다 왼쪽으로 빼도록 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다.

No. 1

	팔	선	녀	가		예	하	고		줄	어	았	아		아	되	되	,	
“	대	사	는		산		서	편	에		있	고		나	는	산		등	편
	에		있	어		상	거	(相	距)	가		멀	지		아	니	하
	되		자	연		다	사	(多	事)	하	와		한		번	도	법
	적	에		나	아	가		경	근	을		들	지		못	하	오	니	치
	인	(處	人)	의		도	리	도		없	고		또	한		교	인
(交	人)	하	는		의	리	도		없	사	읍	기	에	,	시	비	를
	보	내	어		안	복	를		늘	잡	고		검	하	여		천	화	선
	(天	花	仙	果)	와		칠	보	는	금	(七	寶	紋	錦)	으
	로																		
	구	구	한		경	성	을		표	하	나	이	라	.”					

대개의 경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 뒷줄의 비운 칸이 띄어쓰기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정도로 좋을 것이다.

5. 대화문이 하나의 문단이 될 때는 왼쪽 한 칸을 들여쓴다. 한 문단 안에서 대화문이 나오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Nº 1

“	노	든	남	자	의	뜻	을	보	오	니	이	는	반
드	시	값	을	받	고	길	을	빌	리	고	자	하	기
니	,	분	리	가	난	한	증	이	라	다	른	보	화
는	없	고	다	만	행	장	에	지	닌	바	백	팔	염
주	있	으	니	,	빌	건	대	이	로	써	값	을	드
리	나	니	이	라	.”								
	팔	천	녀	그	제	야	기	등	하	여	대	경	말
하	여	왈	,	“	과	연	옥	관	대	사	의	제	자
로	다	.”	하	여	,	각	각	하	나	씩	은	에	지
고	성	진	을	서	로	돌	아	보	고	웃	으	며	바
람	을	타	고	공	증	을							

문단 중에 인용된 문장에서 따옴표와 함께 쓰는 마침표는 생략할 수 있다.

Nº 1

“	노	든	남	자	의	뜻	을	보	오	니	이	는	반
드	시	값	을	받	고	길	을	빌	리	고	자	하	기
니	,	분	리	가	난	한	증	이	라	다	른	보	화
는	없	고	다	만	행	장	에	지	닌	바	백	팔	염
주	있	으	니	,	빌	건	대	이	로	써	값	을	드
리	나	니	이	라	.”								
	팔	천	녀	그	제	야	기	등	하	여	대	경	말
하	여	왈	,	“	과	연	옥	관	대	사	의	제	자
로	다	.”	하	여	,	각	각	하	나	씩	은	에	지
고	성	진	을	서	로	돌	아	보	고	웃	으	며	바
람	을	타	고	공	증	을							

6. 인용처럼 보이는 대화문이 있다.

“저는 보통사람입니다. 추락하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고요.”라고 항의했다.

“내 손을 자네에게 대면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든든할걸세.”

이 부분은 명백히 스크루지와 유령 사이의 ‘대화’이다. 밑줄 친 부분은 대화의 일부가 아닌데 이 때문에 이 문단의 대화 부분만 평문단의 일부로 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대화문으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으면 어딘지 이상해질 것이다.

No 1

	“	저	는		보	통	사	람	입	니	다	。		추	락	하	는		신	
세	를		면	할		수		없	다	고	요	。”	라	고		항	의	했	다	。
	“	내		손	을		자	네	에	게		대	면		이	보	다		더	
높	은		곳	에	서	도		든	든	할	걸	세	。”							

이런 경우, 즉 대화가 위주이고 이 대화에 대한 짧은 부연이 대화 중의 한두 대목에 붙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라고”는 새로운 문단의 시작이 되지 않으므로 들여쓰면 안 된다.

No 1

	“	저	는		보	통	사	람	입	니	다	。		추	락	하	는		신
세	를		면	할		수		없	다	고	요	。”							
라	고		항	의	했	다	。												
	“	내		손	을		자	네	에	게		대	면		이	보	다		더
높	은		곳	에	서	도		든	든	할	걸	세	。”						

주로 번역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 사람의 발화를 두 개의 대화인용문으로 쪼개고 그 중간에 설명적 부분이 들어가는 때가 있다. 대화 상황에서 이런 문장이 오면, 앞뒤의 다른 대화는 대화문으로 적고 이 부분만 인용이 있는 평문단으로 적을 것인가?

“길을 생각해 낼 수 있겠는가?”

“생각이 나냐고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지요.”

7. 괄호를 쓸 때, 앞 문장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부연하는 때가 있다. 이 경우의 괄호에 대하여 온점 다음에 한 칸을 두지 말고 잇대어쓰라고 권고하는 것을 본 적 있다.

№ 1

슈	베	르	트	의	환	상	곡	을	슈	만	은	소	나	타	라
고		보	았	다	(아	인	슈	타	인	도	갈	은	견	해
다	.)		그	런	데		이		곡	이	출	판	된	과
보	면		반	드	시		그	렇	지	만	도	알	다	.	

그러나 이것은 글을 잘못 쓴 것이다. 만약 괄호 안이 완전히 독립된 문장이라면 앞의 온점에 잇대어쓸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고 앞의 문장에 대한 보충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부연적 성격의 것이라면, 앞의 온점을 없애고 괄호 안의 내용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야 한다.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줄표로 괄호를 대체했을 때 맥락이 성립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다음 예시를 보라. (문단 3의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대로 괄호와 온점을 둘 다 여백에 두어보았다.)

№ 1

슈	베	르	트	의	환	상	곡	을	슈	만	은	소	나	타	라
고		보	았	다	(아	인	슈	타	인	도	갈	은	견	해
다	.)		그	런	데		이		곡	이	출	판	된	과
보	면		반	드	시		그	렇	지	만	도	알	다	.	

)。

슈	베	르	트	의	환	상	곡	을	슈	만	은	소	나	타	라
고		보	았	다	—	아	인	슈	타	인	도	갈	은	견	해
다	.		그	런	데		이		곡	이	출	판	된	과	경
보	면		반	드	시		그	렇	지	만	도	알	다	.	

8. 원고지에 글을 쓰도록 하면 끊임없이 문장부호의 위치와 띄어쓰기에 신경쓰게 된다. 보기 싫게 놓이는 알파벳과 숫자를 되도록 억제하고 우리말 표현으로 적으려는 충동에 시달리게 된다.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칸을 예쁘게 맞추려 하기 되기도 한다. 마치 L^AT_EX으로 글을 쓰면 끊임없이 여백과 폰트, 디자인에 신경쓰게 되는 것과 비슷한가?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이만한 것이 없다.